



smart phone(스마트폰) 과 노인(老人)들

스마트폰(smartphone)은
우리의 생활(生活)에
많은 변화(變化)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흐를지 아무도
예측 (豫測)할 수 없지만

분명(分明) 한 것은
스마트폰이 지금보다
더 밀접(密接)한

생활(生活)의
일부(一部)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사실(事實)입니다.

급속(急速) 히
발전(發展)해 가는
스마트폰 시대(時代)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老人)이라 해서
예외적(例外的)으로

특별(特別) 히
우대(優待)해 줄리도
만무(萬無)하고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점잖게 뒷짐 지고
어흠 어흠! 하며 그저
방관(傍觀) 하다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인
현시대는 웹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만나
정보(情報)를 나누고
의견(意見) 교환(交換)의
장(場)으로
이용(利用)하며,
기존(既存)의
삶의 방식(方式)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문화(文化),
역사(歷史)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適應) 하자면
체면 불구(體面不拘)하고
배워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가
골치 아프게
그따위를 배워서
뭘 하겠느냐고요?

당장 죽지도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배우다 죽으면 손해(損害)
볼게 뭐 있습니까?



앞으론 어르신 네니,
회장(會長)님이니,
사장(社長)님이네 하는

공치사(功致辭)의
호칭(呼稱)으로
존경(尊敬) 받기는
글렀습니다.

알아야 면장(面長)도
한다는 격(格)으로

알아야 합니다.

떨어져 사는 아들,
딸이나 손자(孫子), 며느리,
친구(親舊)로 부터
급(急)한 전자메일이 와도
이걸 읽을 수도 없고

답장(答狀)을
하지도 못한다면 말장
헛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들 생활(生活)의
전(全) 분야(分野)에
있어서

멀티미디어로
이뤄질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압니까?

지금쯤은
저승(儲承)에서도
벌써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붐을 이루고 있는지?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배웁시다.

월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별것 아닙니다.
도토리 키 재기겠지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競走)처럼 토끼가
방심(放心)한 사이에
거북이도
토끼 따라잡을 수가
있다지 않습니까?

팔십 된 늙은이가
모르면 8살 어린애에게
배운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 나이에
취직(就職)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무슨 자격증(資格證)을
따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향상(向上)시켜
나가는 활력소(活力素)로
이용(利用)하여

재미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10년
생존율(生存率) 40%라는..

그렇다고
그냥 앉아 하루에도 몇 번씩
저승(儲承)을
왔다 갔다 하는 실없는
번뇌(煩惱) 망상(妄想)을
일으키기보다는



차라리 말없는 컴퓨터와
마주 앉으면
그게 노래도 들려주고

그림도 보여주며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취생몽사(醉生夢死)가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자기의 취미(趣味)나,

하고 싶은 일에
열중(熱中)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幸福)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병자(病者)이건
첫째 당사(當者)의
투병의지(鬪病意志)가

강(強)해야만 병(病)을
이겨낼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世上)에서
인간(人間)들이

자기중심적(自己中心的)으로
만든 잣대로
모든 것을 재려 하니까

문제(問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료(無聊)한 노인네들!
공원(公園)에 앉아
힘없는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며

지팡이 짚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나는 아직은 이렇게
컴퓨터와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多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바탕
연극(演劇) 잘하다가
가라!"는 어느 선객(禪客)의
말처럼

이왕 왔으니
한바탕 잘 놀다가
천명(天命)이 다하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느냐고요?
서둘지 마세요?

갈 때가 되면
누구나 어김없이
가는 것입니다.

극락(極樂), 천국(天國)
그런 곳은 역시(亦是)
인간(人間)들이
이름 지워둔 곳이

시끄러울 것 같아
그저 본래(本來)로
왔던 곳인

적적 요요
(寂寂了了:적적한 가운데
사리를 통달하는 것)

한 생명(生命)의
원천(源泉)으로 되돌아
가겠지요!

뭐 마치 잔잔한 바다에
바람이 일면
파도(波濤)가 일어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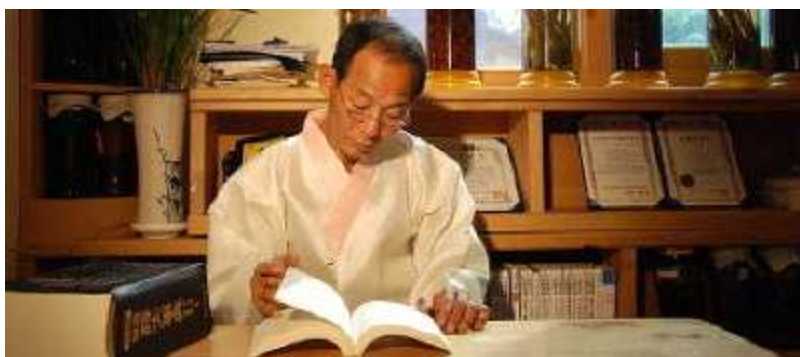
수없이 많은 물방울이
생겨났다 사라지듯이..
그저 그렇게!!.



[평생(平生)
공부(工夫)를 하자]

공부(工夫)라고 하면
학창 시절(學窓時節) 공부만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시절(時節)이 끝나면
공부에서
해방(解放)되었다고
좋아한다.
어리석은 사람 중의
하나다.



자신(自身)의 삶을
현실(現實)에
안주(安住)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역할(役割)이
없어지게 된다.

빠른 속도(速度)로
변화(變化)하는
글로벌(Global)
시대(時代)에

자신만의 무기(武器)가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공부(工夫)다.

여기에서 공부란
미래(未來)의 꿈을 향(向)해
준비(準備)하는
공부일 수도 있고,

자기 계발(自己啓發)을 위해,
자기 경영(自己經營)을 위해,
책(冊)을 읽고
실천(實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重要) 한 것은
자신을
단련(團練)시키기 위해,

미래(未來)를 위해,
준비(準備)한다는 것이다.

배움은 바로 자신(自身)의
성장(成長)과 연결(連結)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늘 평생(平生) 공부(工夫)를
염두(念頭)해 두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출처]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성장(成長)과 연결(連結)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늘 평생(平生) 공부(工夫)를
염두(念頭)해 두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출처]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